

2030년까지 대경권 중심 45조 투입 지역·산업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

iM금융그룹

③ iM금융그룹

iM금융그룹

iM금융이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실천한다. 모빌리티·로봇·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며, 소상공인이나 지역 취약계층에는 금리 감면, 채무 조정 등 수혜자 중심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시중금융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 지역에 자금을 투입하며 '지역에 거점을 둔 시중금융그룹'이란 정체성을 찾고 있다.

iM금융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iM금융은 기존 거점지역인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자금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동남권·충청권 등 신규 진출 지역 내에도 자금을 투자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에도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와 성장을 지원한다.

45조원 가운데 38조5000억원원은 생산적 금융에 배정됐으며, 포용적 금융에는 6조5000억원의 공급목표가 설정됐다. iM금융은 모빌리티·로봇·반도체·이차전지 등 대경권의 4대 신산업에 생산적 금융 자금을 적극 투입할 예정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발굴부터 육성, 사업 확대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포용적 금융 부문에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 중심의 금융지원을 적극 공급한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총 45조원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공급계획은 산업 전환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기존 지역금융의 기반 위에 생산적 금융을 결합하고,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 핵심산업 지원... '지역금융의 재설계'

iM금융의 생산적 금융 공급 목표는 '지역금융의 재설계'다.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출자해온 iM금융의 전략을 재확인하고, 지역 내 미래산업 육성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먼저, iM금융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모빌리티·로봇·반도체·이차전지 등 4대 핵심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8월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통해 4개 전략 분야를 확정했는데, iM금융그룹은 전(全) 계열사를 통한 체계적 자금 투자를 통해 지역 산업 육성과 활성화



①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생산적 금융에 38조5000억 배정
대구·경북 4대 핵심산업 육성 초점

그룹 차원 '생산적 금융 협의회' 신설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고도화
중소 밀착 영업·금융 사각지대 해소

포용적 금융, 수혜자 중심 지원
보증부 대출로 소상공인에 '숨통'
비수도권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
포용금융 브랜드 '인터마음' 출범



② 강정훈 iM뱅크 은행장(왼쪽 세번째) 및

관계자들이 '인터마음' 출범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③ 지난 5월 iM금융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아동양육시설 '산망애원'을 찾아 벽화 그리기, 센터 정비, 간식 만들기 등 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④ 대구 iM뱅크 제2본점. iM금융은 iM뱅크 제2본점에 위치해 있다. /iM금융·iM뱅크

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협의회'도 신설했다. 협의회는 그룹 계열사의 생산적 금융 사업 추진 목표 설정 및 성과를 관리하고, 계열사 간 협업을 활성화해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도 확대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금 공급 체계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포항시와 연계해 구축한 '원스톱 금융 지원 체계'는 iM뱅크와 지자체의 주요 협업 사례다.

기존 자금 공급 체계도 계열사별로 확대한다. 지주사 차원에서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을 고도화해 혁신기업의 초기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한다. iM뱅크는 1인 지점장 제도인 '기업영업전문인력(PRM)'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밀착营业을 확대한다. 계열사별로도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해 산업 분석 및 심사 과정의 전문성을 확대한다.

시중금융그룹 전환 이후 신규 진출한 강원·충청·호남 지역에서의 자금 공급도 늘린다. 핵심 계열사인 iM뱅크가 신규 출점한 '거점점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지자체 및 지역신보와 연계한 보증대출 공급도 늘린다. 비수도권 중심의 거점점포 출점도 지속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 '수혜자 중심' 포용금융 추진

iM금융의 '포용적 금융'은 수혜자 중심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금리 감면 및 채무조정, 대출 공급 확대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 가능한 금융적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 접근성 개선을 통한 금융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다문화가정 대상 금융교육 확대 등 비금융적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지자체·공공기관 연계한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인다. iM뱅크와 지자체가 자본을 출연하면 지역신보가 이를 재원으로 보증을 맡고, iM뱅크가 해당 보증을 기반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공급하는 형태다.

iM뱅크는 지난 2024년부터 지자체 및 지역신보와 연계한 보증대출을 공급 중이다. 올해에만 1500억원 이상의 보증부대출을 공급했다.

금융감독원 및 지역 시설과 연계한 금융교육 확대도 추진한다. iM금융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거주 고령층이나 다문화가정 구성원 대상 교육을 확대해 금융자립을 지원한다. 특히 기본적인 금융 교육부터 자산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iM시니어 금융대학'의 운영을 통해 지역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역량13한다.

iM금융은 일원화된 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브랜드도 출범했다. iM뱅크는 지난 5월 포용금융 브랜드 '인터마음'을 발표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라는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감면 및 채무조정,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iM금융의 포용적 금융 공급 목표 대부분이 iM뱅크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황병우 iM금융 회장은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iM금융에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준 고객에 현장 중심의 맞춤형 나눔으로 보답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 및 청년, 노인부터 다문화가정까지 전 세대와 소통하며 지역 밀착형 ESG경영과 포용금융 실천에도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